

문화재청 공고 제2018-6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2. 21.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김정희 필 대평고회 (金正喜 筆 大烹高會)	2폭	전**·전** (간송미술문화재단)
2	김정희 필 차호호공 (金正喜 筆 且呼好共)	2폭	전**·전** (간송미술문화재단)
3	김정희 필 침계 (金正喜 筆 淸溪)	1폭	전**·전** (간송미술문화재단)
4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	1구	국유 (대통령비서실)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김정희 필 대팽고회(金正喜 筆 大烹高會)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정희 필 대팽고회(金正喜 筆 大烹高會)
-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2폭
- 규 격 : 화면 129.5×32.0cm, 전체크기 193.5×39.0cm
- 재 질 : 종이, 비단
- 형 식 : 족자(簇子)/ 대련(對聯)
- 조성연대 : 1856년(철종 7)
- 사 유

‘김정희 필 대팽고회’는 작가가 세상을 뜬 해인 1856년(철종 7)에 쓴 만년작(晩年作)으로, 행농(杏農)이라는 호를 쓴 인물에게 써 준 작품이다. 두 폭으로 구성된 분당지(粉唐紙) 위에 예서(隸書)로 쓴 대련(對鍊) 형식이다.

글씨의 내용은 중국 명나라 문인 오종잠(吳宗潛)의 「중추가연(中秋家宴)」이란 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푸짐하게 차린 음식은 두부·오이·생강·나물이고, 성대한 연회는 부부·아들딸·손자라네(大烹豆腐瓜薑菜) 高會夫妻兒女孫”라는 글귀를 쓴 것이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장 이상적인 경지라는 내용에 걸맞게 꾸밈이 없는 소박한 필법으로 붓을 자유자재로 운용해 노(老) 서예가의 인생관(人生觀)과 예술관(藝術觀)이 응축되어 있다. 김정희의 인생에 대한 태도와 성숙한 필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한국서예사에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작품이다.

□ 김정희 필 차호호공(金正喜 筆 且呼好共)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정희 필 차호호공(金正喜 筆 且呼好共)
-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2폭
- 규 격 : 화면 135.9×30.2cm, 전체크기 205.7×47.6cm
- 재 질 : 종이, 비단
- 형 식 : 족자(簇子)/ 대련(對聯)
- 조성연대 : 19세기 전반
- 사 유

‘김정희 필 차호호공’은 “잠시 밝은 달을 불러 세 벗을 이루고, 좋아서 매화와 함께 한 산에 사네(且呼明月成三友」好共梅花住一山)”라는 문장을 두 폭의 대련에 예서로 쓴 것이다. 두 번째 폭에는 “촉(蜀)의 예서 필법으로 쓰다(作蜀隸法)”라는 글귀를 넣어 중국 촉나라 시대의 비석에 새겨진 서체를 응용했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촉예(蜀隸)는 날카로운 파체(破體)를 구사한 한나라 예서[漢隸]에 비해 단정하고 예스러운 필치가 특징이다. 이 작품은 금석학에 조예가 깊었던 김정희의 학문이 예술과 결합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필획 사이의 간격이 넉넉하고 자획의 굵기가 다양하며, 빠른 붓터치로 속도감 있는 비백(飛白) 효과를 내는 등 운필(運筆)의 멋을 최대한 살린 김정희 서예의 대표작이다.

□ 김정희 필 침계(金正喜 筆 棼溪)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정희 필 침계(金正喜 筆 棼溪)
-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화면 42.7×123.5cm, 전체크기 56.8×166.4cm
- 재 질 : 종이, 비단
- 형 식 : 횡피(橫披)
- 조성연대 : 1852년(철종 3) 전후로 추정
- 사 유

‘김정희 필 침계’는 분당지에 예서(隸書)로 쓰고 비단으로 장황(粧纒)한 횡피(橫披)의 형태이다. 화면 오른쪽으로 치우쳐 ‘침계(棼溪)’ 두 글자를 쓰고, 왼쪽에는 8행에 행마다 9~12자씩 모두 86자의 발문을 행서로 썼으며, 두 개의 백문방인(白文方印)을 찍는 등 격식을 완전하게 갖춘 작품이다. 침계(棼溪)는 김정희와 교유한 윤정현(尹定鉉, 1793~1874)의 호(號)이다.

화면 왼쪽에 있는 발문(跋文)의 내용에 의하면 윤정현이 김정희한테 자신의 호를 써 달라고 부탁했으나 한나라 예서에 ‘침(棼)’자가 없기 때문에 30년간

고민하다가 해서·예서를 합한 서체로 써 주었다고 한다.

해서(楷書)와 예서(隸書)의 필법을 혼합해서 쓴 ‘침계’는 김정희의 자유분방한 개성이 돋보이는 과체(破體)의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구성과 필법에서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김정희의 학문·예술·인품을 엿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희 필 침계’는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

- 지정현황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1974.1.15 지정)
- 명 칭 :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국유(대통령비서실)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 수 량 : 1구
- 규 격 : 불상높이 108cm, 방형대좌 폭 93.5×91.1, 높이 24.5cm
- 재 질 : 화강암
- 조성연대 : 9세기
- 사 유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9세기에 조성된 석불좌상으로, 편단우견(偏袒右肩)에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중대석과 하대석은 손실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큰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 비례와 풍부한 양감이 돋보이는 표현, 섬세한 부채꼴 옷주름 등에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통일신라 불상조각의 높은 수준을 엿보게 한다. 특히 비대하고 무겁게 보이는 형태와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평행선 주름 등은 9세기의 새로운 시대적 조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현존하는 통일신라 석불(石佛) 중 머리와 몸체가 일체(一體)로 완전하게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연꽃문양을 새긴 사각형대좌는 동시기 불상 중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와 같이 동 석불의 문화재적 가치를 종합해 볼 때 9세기 통일신라 불상을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조각으로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필요가 충분하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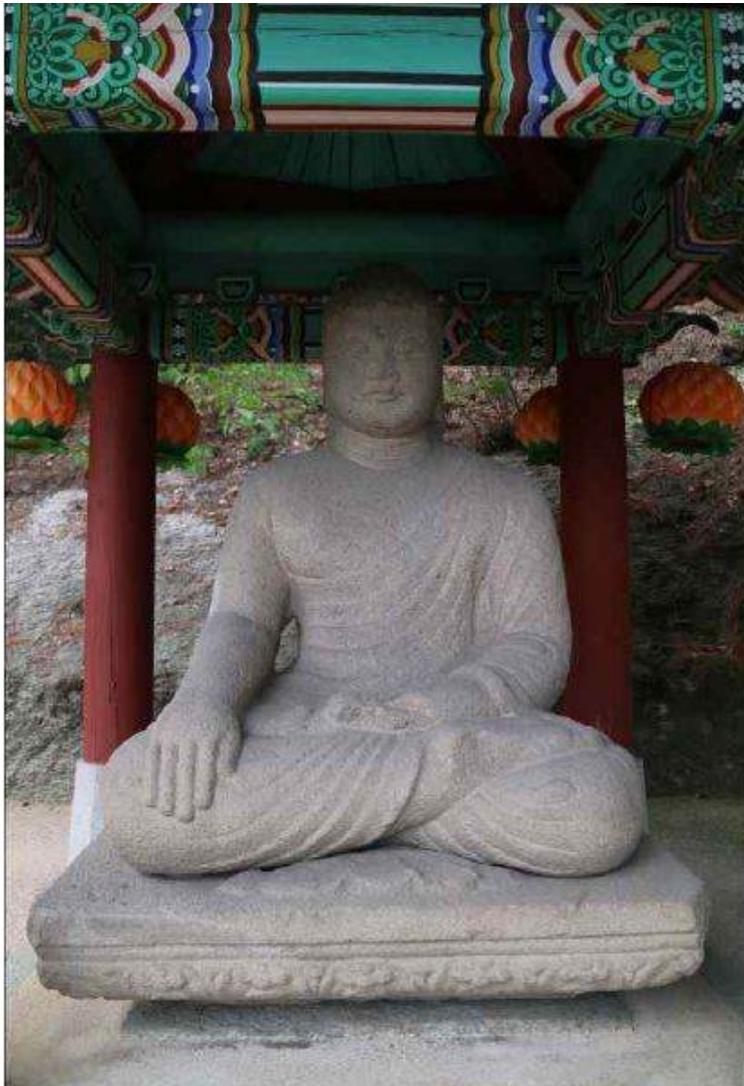
<김정희 필 대팽고회>



<김정희 필 차호호공>



<김정희 필 침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